

# 흑아프리카 전통 가족 제도의 특징

유재명  
(경희대학교)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형성된 가족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의 특징적 요소들, 혼인 풍습(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 부계 및 모계 사회의 모습 등 3가지 소주제를 택하였다.

우선, 우리는 흑아프리카의 전통 사회에서 가족 제도를 지탱하는 흑아프리카 사회의 특징적인 요소들로는 남녀 역할 구분, 토지 소유 및 운용, 혼인지참금, 가족의 사회적 가치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요소들은 가족 구성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하게 이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늘리는 데 이용된 혼인 풍습,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관점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한 혼인 풍습, 즉 일부다처제 및 일처다부제를 분석하였다. 흑아프리카 대부분의 전통사회는 일반적으로 일부다처제를 영위하였다. 예외적으로 바실렐레족과 바히마족은 일처다부제를 추종하였다.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일부다처제는 부계 혈족뿐 아니라 모계 혈족사회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행사했던 수장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는 전통사회의 관습에 근거하고 있었다. 수장의 권위와 위엄은 가족 구성원의 수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즉 공동체를 공고히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흑아프리카에서 대다수의 전통 사회는 부계 혈족을 따랐다. 반면에 모계 혈족은 일명 “모계 벨트”라는 지역에서 성행하였다. 모계 벨트란 반투족들이 거주하는 사바나 지역을 일컫는다. 즉, 대서양에 접하고 있는 앙골라 해안에서 인도양 연안의 탄자니아 및 모잠비크 해변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모계 혈족을 따르는 하위 종족으로는

콩고족, 쿠바족, 텔레족, 펜데족, 야카족 등이 있다.

흑아프리카 사회의 전통 가족 제도는 경제, 사회, 정치, 구성원의 공동체 정신 등을 바탕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종족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선택의 결과였다.

주제어 : 아프리카 전통가족제도,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모계벨트, 부계사회, 모계사회

## I. 서론

흑아프리카 종족의 사회구조는 전통적으로 피부색, 종족의 기원(신화), 종족 등에 따라 계층분화가 되었고, 그 계층분화는 현재까지 유지되어 정치제도 혹은 정치기구로 발전하였다. 각 계층은 그들이 담당하는 다양한 역할을 통해 공동체를 떠받치면서 종족의 번영을 책임져 왔다.

흑아프리카(북부아프리카와 생태, 문화, 종족 등으로 구별되는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 여러 종족의 유지 및 번영 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가족 구성 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흑아프리카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의 확대는 소위 ‘족장자치구역’이란 공통된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공통된 제도는 종족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종족의 영속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흑아프리카의 전통 사회에서 족장자치 구역이란 한정된 영토에서의 정치 및 행정 단위로 한편으로는 혈족사회와 왕국의 중간 형태로 나타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공동체 장의 거주지가 있는 곳을 말한다.<sup>1)</sup> 이러한 관점에서 족장자치구역의 근간인 가족제도와 친족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흑아프리카인들이 종족 유지와 번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족장자치 구역의 틀 안에서 우선 흑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이 종족 유지를 위해 어떠한 제도 혹은 수단을 영위했으며, 그 제도 혹은 수단을 통해 유지시킨 다양한 종족 사회의 특징은 어떠한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즉,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의 특징적 요소들

1) François Zuccarelli, “De la chefferie traditionnelle au canton : évolution du canton colonial au Sénégal - 1855~1960”, *Cahiers d'études africaines*, vol. 13, n°50, 1973, p.213.

(남녀 역할 구분, 토지, 지참금,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혼인(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형태를 살펴며, 마지막으로 종족별 가계구성에서 드러난 사회적 특징(부계사회, 모계사회)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가족의 특징적 요소들

모든 사회는 가족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은 문화나 지리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가족의 범위와 가치는 시간을 두고 발전해 왔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부계가족과 모계가족으로 나뉜다. 이 가족들의 집합이 부계 및 모계 사회다. 이 구분은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사회와 경제와 종교 등에서 남녀 역할의 차이에 기인했다.

흑아프리카 사회가 남성과 여성 각 개인에게 책임과 권리 그리고 역할을 부여하면서 고착시킨 모습, 그리고 그 결과 형성된 가족의 구성 형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가족을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토지, 가족 구성원을 넓히는 데 이용된 혼인지참금, 그 지참금으로 자주 활용되는 가족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 1. 남녀의 역할 구분

흑아프리카사회에서 친족관계의 최소단위인 가족관계에서 주목할 점은 남녀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역할 구분은 관습, 혹은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에 따랐다. 흑아프리카의 여러 부족 사회에서 많은 경우 여성은 밭일을 담당했고, 남성은 사냥, 유목, 어업 등을 담당했다.<sup>2)</sup> 이러한 역할 분담은 기후와 지형에 영향을 받은 농업 지향적 사회구조, 즉 노동력 확보 및 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에 기인했다. 일례로, 바밀레케족의 경우 남성(동물 사육)과 여성(밭일)의 역할분담은 더 높은 소득,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고 과시

2) Cheikh Anta Diop, *Nations nègres et culture*, Paris: Présence Africaine, 1979, p.218.

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었고, 현재도 그러하다.<sup>3)</sup>

흑아프리카 사회의 가족(친족) 내에서 남녀 역할의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맏이의 권한을 들 수 있다. 그의 권한은 부계사회와 모계 사회를 막론하고 강력했다. 만일 가장이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후계자는 큰 아들이나 가장의 형제 중 최고 연장자가 되었다.<sup>4)</sup> 모계의 경우 최고 연장자 여자가 가장이 되었다. 맏이는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 조상을 모시는 제례에 관한 책무를 안았던 대신 가계의 재산(특히 영토) 유지 및 처분 등에 있어 전권을 부여받았다. 흑아프리카 사회에서 맏이의 권한을 최고 연장자가 대신하던 부족들도 있었으나 이 경우는 종족의 평화유지나 종족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 젊은이들을 위한 의례 주관(할례 등 입문의식) 등을 주로 하되 재산권에 대한 전권은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흑아프리카 사회의 친족관계 구성에서 맏이이면서 명망 높은 수장의 수위권은 친족관계, 주거지, 계층 등의 원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수장의 수위권 집행 방식은 집단 유지의 근간으로서 생산, 소비, 자본 축적을 구체화하는 요인이었다.

흑아프리카 전통 사회 대부분의 종족에서 여성들은 정치적 권한에서 배제되었음에도 가계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사회에서 기본적인 친족관계는 어머니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흑아프리카 전통 사회의 가계 구성은 종족에 따라 다수의 인원을 지향하는 그룹과 소수의 인원을 지향하는 그룹으로 나뉘었다. 또한 종족에 따라 그 그룹은 부계사회, 혹은 모계사회, 혹은 혼합사회 등 다양한 형태의 혈족사회를

3) Cf. Jacques Marquet, “Bamiléké”,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bamileke/>

4)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서 서열은 가장 중요했다. 첫째(맏이), 둘째 순으로 서열이 매겨졌다. 여기에서 첫째와 둘째는 상이한 세대를 의미한다. 첫째/둘째의 관계는 형제들 간의 첫째, 둘째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첫째이거나 누군가의 둘째였다. 이러한 종속관계에서 둘째는 첫째를 위해서 일했으며, 첫째는 보상으로 둘째가 혼인할 때 그가 필요로 하는 혼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했고, 첫째는 둘째의 혼인을 막을 수 있었다. 첫째이며 가장은 망자가 된 가장의 부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은 필요한 경우 일가친척 구성원들을 도왔다. Stéphane Bigo, *L'Homme de l'Afrique noire*, 2005, p.7. [www.stephanebigo.com/pdf\\_files/](http://www.stephanebigo.com/pdf_files/)

구성했다. 그룹의 인원수는 환경에 따라 삶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쪽으로 정해졌다. 특히 그 환경에 적정한 인원은 종족의 생활 터전인 영토의 넓이, 그 쓰임새, 비옥의 정도, 생산물과 생산량 등에 따라 조절되었다.

## 2. 토지

흑아프리카에서 토지는 가족, 친족, 부족 등의 사회 구성 및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토지 소유는 부족 공동체 구성원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졌다. 부족 공동체에서 개인은 일반적으로 혼인과 함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소유는 엄밀히 말하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토를 경작하고 유지하며 잘 보호할 권리를 말했다. 그러나 수장을 제외하고는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사회에서 토지 소유를 보장하는 일, 엄밀히 말하자면 토지 사용권을 보장받는 일은 한편으로는 농업생산성을 장려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자원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토지 소유는 경제 질서(노동, 자본)뿐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sup>5)</sup>(가계, 공동체, 집단) 및 문화 자산 보전(응집력, 단체교육, 부족결정 및 소통 방식)으로 조상의 유산(자연자원)을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의 논리에 따르면 토지 소유 보장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었다. 즉, 토지 소유는 개인의 토지 사용과 집단의 사회 규범과의 합의에 따른 결과였다.<sup>6)</sup> 흑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는 만이가 토지의 사용, 유지 및 분할 공여에 대해 전권을 가졌던 대신, 그것을 관장했던 만이는 가족 구성원이 혼인을 할 때, 혼인지참금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부족들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관한 권한이 관습으로 인정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흑아프리카에서 토지 관리를 위해 국가는 한편으로는 권위적이

5) Alain Testart, "Propriété et non-propriété de la Terre. L'illusion de la propriété collective archaïque (1ère partie)", *Etudes rurales* 165-166, 2003, pp.211-212.

6) Paul Mathieu, *Les paysans, la terre, l'Etat, et les marchés fonciers "émergents" : quelles pratiques de sécurisation et de formalisation endogène des transactions?*, Bruxelles: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Institut d'Etudes du Développement, 1999, p.3.

고도 행정적으로 토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관습에 따라 원주민들에게 영토권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전통사회에서 부족 공동체를 경영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원주민들의 영토권은 종족 공동체 내부 사회뿐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약화되었다. 게다가 상당수 족장들은 관습에 따라 마을 공동의 재산이었던 토지를 산업 및 경제 논리를 앞세워 처분했다. 관습에 따라 토지가 마을 공동체의 공동재산이었다 해도, 그 영토에 속해 있었던 가족구성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소작농은 경쟁력을 갖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작농들은 땅을 팔고 더 큰 농사를 짓는 곳으로 떠나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 3. 지참금

아프리카에서 혼인 지참금의 근원은 모호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흑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 그것은 사회문화적 다양성, 즉 관습으로 받아들여졌다. 혼인지참금은 다양한 형태 및 방식으로 존재하면서 자식과 혼인 적법성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프리카 사회에서 혼인 지참금은 두 가지 모습, 즉 현물 공여 혹은 용역 제공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현물 공여는 흑아프리카에서 널리 퍼진 방식이었다. 농촌 지역에서는 신성한 동물을 현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지역과 종족 그리고 관습에 따라 다양했다. 재화는 소비 가능한 것과 소비가 불가능한 것을 포함했다.<sup>7)</sup> 혼인 지참금이 신부 측 집안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의식에 참여했던 신부 측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지참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 지참금은 승낙의 의미로 그 자리에서 소비되었다.

7) 일례로 미래의 신랑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미래의 배우자에게는 가방, 14병의 음료, 3개의 모자, 6개의 목도리, 손가방 하나 등이 혼인 지참금이었다. 현재의 지참금은 냉장고, 자전거, 컴퓨터 등으로 바뀌었다. Isabelle Akouhaba Anani, *La dot dans le code des personnes et de la famille des pays d'Afrique occidentale francophone cas du Bénin, du Burkina-Faso, de la Côte d'Ivoire et du Togo*, Copenhagen: The Research Department,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08, p.12.

혼전에 경제력의 부족으로 미래의 신랑이 미래의 신부 집에서 서비스 공여로 대신한 지참금은, 혼례 당일에 부족 간의 평화와 동맹의 표시로 인정되었다. 이 형태의 지참금은 미래 남편의 자질, 즉 미래의 부인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 엄밀히 말하자면 부인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자질을 검증하는 방식,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이었다. 즉 발농사, 집 건축이 그 예들이다. 그 용역에 대한 대가는 이혼할 경우 남편 집안에 환불되어야 했다. 서비스 공여로 대신하는 지참금은 오늘날 드물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지참금 관습에서 독특한 예는 신부 측에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였다. 이때 지참금 액수는 혼인생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의 만족 정도와 안정적인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척도가 되었다. 오늘날 지참금은 현금 지불 방식이 대세가 되면서 딸을 파는 비용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딸을 판다는 의미가 혼인과 같은 뜻을 가진다는 점에서 여성이 물건의 형태로 매매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매매계약은 당사자들 - 소유자(딸의 부모)와 구매자(미래의 사위) - 간의 쌍무적 계약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지참금은 그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 혼인을 기회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sup>8)</sup>

요약하면, 세 가지 경우(현물 공여, 서비스 공여, 신부 매수)의 지참금은 한편으로는 부인을 데려오는 비용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을 잃은 신부 측 집안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졌다.

#### 4. 가족

흑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 가족은 혼례에서 미래 남편의 가족과 미래 부인의 가족 간에 일련의 비용, 즉 혼인지참금을 대신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일례로, 일부다처제를 운용하는 차가족(탄자니아 및 케냐 거주)의 전통 사회에서 혼인을 위해서는 상당한 지참금이 필요했다. 이 종족의 사회에서 지참금은 전통적으로 가족으로 지불되었다.<sup>9)</sup> 흑아프리카 사회가 개인들 간의 엄격한

8) Isabelle Akouhaba Anani, 위의 글, pp.12-22.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어 dot(지참금)은 아프리카 전통 사회의 관습과 그것의 발전된 상태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의무 및 집단들 간의 엄격한 의무에 바탕 했다는 관점에서 혼인지참금은 인간 관계에서 균형을 이루는 제도라 여겨졌다. 또한 흑아프리카인들의 가축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원칙에 따랐다. 이 원칙은 전통 사회에서 상당한 인간적 관계, 즉 믿음에 바탕하고 있었다. 가축의 주인은 관습에 따라 동물 떼와 그 떼를 사육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으며, 그 권리는 가축 주인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전통 사회에서 가축은 부를 상징했고 상속의 대상이었다.<sup>10)</sup> 그러나 흑아프리카에서 동물은 경제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가축은 고기나 가죽, 우유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 농업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보다 의례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니즈 폼은 아프리카인들의 소에 대한 집착을 ‘가축 콤플렉스’, 숨겨진 혹은 의례적인 가치에 대한 콤플렉스라고 칭했다.<sup>11)</sup>

흑아프리카 전통 사회의 특징적인 요소들, 즉 남녀 역할 구분, 토지, 지참금, 가축 등은 가족 유지 및 그 구성원의 수를 확대하는 데 중요했다. 흑아프리카의 각 종족은 이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가족의 유지 및 그 구성원 확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혼인제도로 일부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를 추종했다.

### III. 혼인 형태

식민지 이전 흑아프리카에서 모든 것은 관습과 조상들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었다. 조상들이 일부다처제<sup>12)</sup>를 실천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관습이 되었으

9) Roger Meunier, “Chagga”,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chagga/>

10) 헤레로족(나미비아, 보츠와나, 앙골라 거주)의 경우 가축 상속은 부계 쪽뿐 아니라 모계 쪽으로도 이루어졌다. Universalis, “Herero”,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herero/>

11) Denise Paulme, “Structures sociales traditionnelles en Afrique Noire”, *Cahiers d'études africaines*, vol. 1, n°1, 1960, pp.18-19.

12) 용어 폴리가미polygamic는 자주 일부다처제polygynie와 일처다부제polyandrie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므로 후손들 또한 일부다처제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의 일부다처제는 이집트 파라오들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정치적 목적의 ‘정략적 혼인’과 사회적 목적의 남녀 인구구성 비율 유지를 위한 목적에 그 기원을 두고 있었다. 즉, 이 제도는 한편으로는 상류 계급과 이 계급의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한 제도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후손 증식 혹은 남녀의 성비(性比)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였지 남자들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sup>13)</sup>

흑아프리카 타사회의 일부다처제는 고대 이집트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 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는 신분, 전통적 관습, 법, 이슬람 종교 덕분에 공고화되면서 조상들이 영위했던 제도로 여겨졌으며 가장의 권위와 권력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에 부응하는 제도,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제도, 생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sup>14)</sup>로 여겨졌다. 즉, 이 제도는 부족 전통의 유산으로 관습이 되었고, 현재도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관습 혹은 삶의 규범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문화적 전통에서 일부다처제는 적어도 그 근원을 살펴보면 부인과 자녀들의 행복을 중시했다. 그런데 가장의 죽음은 부인들과 아이들의 삶과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부다처제는 망자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망자 가족은 체계적으로 형제 혹은 가족과 가까운 다른 남자에 의해 부양되었”<sup>15)</sup>기 때문이다. 일부다처제는 미혼 여성들의 노동, 경제제도, 교육, 의식 변화 등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알렉스 카가메에 따르면 르완다의 전통사회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일부다처제보다 보편적이었다고 한다.<sup>16)</sup> 그러나 일부다처제를 추종했을 경우 르완다에서의 그것은 최대 50여명의 부인까지 둘 수 있었던 아프리카 대호수 주변 국가들<sup>17)</sup>의 그것과는 규모와 방식으로 차별되었다. 최대 4명의 부인을 둘 수

13) Aboubacry Moussa Lam, “La Polygamie : réalité, causes, manifestations et conséquences en Afrique noire depuis l’Egypte ancienne”, *ANKH* n° 16, 2007, p.53.

14) *Ibid.*, p.71.

15) Frédérique Jouval, *Histoires de Polygamie Africaine*, [http://www.picturetank.com/Histoires\\_de\\_Polygamie\\_Africaine.html](http://www.picturetank.com/Histoires_de_Polygamie_Africaine.html)

16) Alexis Kagame, *Les organisations socio-familiales dans l’ancien Rwanda*, Bruxelles: Institut royal colonial belge, 1954, pp.292-294.

있는 ‘소규모 일부다처제’를 선호했던 르완다에서는 한 남자가 둘 혹은 그 이상의 여자와 혼인하는 ‘동시적인 일부다처제’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혼인하고, 그 부인과 헤어진 후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연속적인 일부다처제’로 구별되었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보편적이었기 때문이다. 르완다의 전통 사회에서 왕족은 한꺼번에 다수의 부인을 얻는 ‘연속적인 일부다처제’를 추종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왕이 몇 년이 지난 후 한두 명의 부인을 포기하면서 또 다른 부인을 얻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왕은 자신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 경우 첫 번째 부인들과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반면에 불쾌감을 주는 부인들과는 부부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으면서 관계를 끝맺음했다.

르완다에서 농부가 일부다처제를 영위한 경우, 그것은 노동력 확보와 가족 및 재산 보호, 불임 해결과 징벌, 종교 등의 목적이었다. 부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아이가 생길 때, 또 다른 노동력과 보호자를 얻을 수 있었으며, 남자 아이들은 외부 공격으로부터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여자 아이들은 혼인을 통해 가족을 부풀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첫 번째 부인이 불임일 경우 아이들을 갖기 위해 다른 여자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며, 첫 번째 부인이 남편을 공격하지 않았을 때 그를 징벌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다처의 세 번째 이유는 토속종교 때문이었다. 한 남자는 점쟁이(예언가)의 신탁을 통해 작고한 가족 일원들 중 한 명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명목으로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맞을 수 있었다.

고대 르완다에서 일부다처제의 규범은 부인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려는 데 있었다. 이 규범에 따라 남편이 죽을 경우, 그 부인들의 소유는 다음과 같았다. 일부다처제를 실천한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 그의 젊은 부인은 후계자로 지정된 아들의 차지가 되었다. 일부다처제를 실천한 형제가 죽었을 경우, 그의 부인은 다른 형제에게 주어졌다. 일부다처제를 실천한 외아들이 죽었을 경우, 아버지가 아들의 부인을 취했다.<sup>17)</sup> 그러나 현재는 일부다처제가

17) 아프리카 대호수 주변 국가들이란 부룬디,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르완다를 말한다. 이 명칭은 지리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19세기에 Richard Francis Burton, David Livingstone, Henry Morton Stanley 등과 같은 영국 탐험가들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8) Gaspard Musabyimana, *Sexualité, rites et mœurs sexuels de l'ancien Rwanda*,

각 시민을 보호하고 여성해방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실천될 수 없다. 오늘날 르완다에서 일부다처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부다처제가 가장 성행하고 있는 나라, 그 제도가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나라는 세네갈이다. 전통 사회에서 일부다처제가 시행되고 있었던 이유는 사회적 관점으로는 물질적 동기보다는 종교와 노동력 때문이었다. 일부다처는 경제 및 노동력 제공의 관점에서 아이들과 여자들의 특별한 가치로 인해 시골지역에서 선호되었다. 반면 현재 전체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도인 이 나라에서 젊은 여성들의 미혼 상태는 쉽게 용인되지 않는다. 게다가 여자들은 20세 전에 혼인을 하고 남자들은 20세 초·중반에 혼인하는 까닭에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남자와 여자들과의 혼인적령기 차이로 인해 일부다처가 성행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일부다처를 원하는 가정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물질적 동기 때문에 일부다처를 선호한다.<sup>19)</sup>

토속 종교의 영향으로 일부다처제를 추종한 나라로는 마다가스카르를 들 수 있다. 이 사회에서 일부다처제는 여자가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소유자’라는 종교적 믿음에서 기인했다. 따라서 하나의 집단에 삶의 근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단의 삶은 발전될 수 있다고 믿었다. 집단의 생명을 확대하기 위한 근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로 일부다처제의 세계관이었으므로<sup>20)</sup>, 남자는 가계를 확장하기 위해 여러 명의 여자들을 소유해야 했다. 관습에 따르면 첫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부인으로서 지위와 관련된 이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한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는 것에 반대할 수 없었다. 각 부인은 각자의 가정을 가졌다. 일부다처제 하의 아이들은 박애정신 하에서 교육되었다. 아이들 모두는 형제들로 여겨졌고 공통의 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일부다처제는 전통적인 제도였으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마다가스카르에서 일부다처제는 가족의 응집력을 위협하며 지금도 필요한 제도인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한 여자와 혼인한다는 것은

Bruxelles, à compte d'auteur, 1999, pp.170-171.

19) Maurice Delafosse, *Les Noirs de l'Afrique*, Paris: Payot, 1922, p.124.

20) cf. <http://imahaka.wordpress.com/2009/11/02/la-polygamie/>

장인에게 많은 재화를 주어야 함을 의미하기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일부다처는 현재 부유한 가장에게만 거의 관습적으로 남아있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부다처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기독교와 개신교의 영향으로 일부다처는 약화되어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흑아프리카의 전통 사회에서 일부다처제는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관점에서 운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일부다처가 유행했으며, 현재도 합법이다. 이 나라의 전통사회에서 남자는 관습과 규범에 따라 일부일처 혹은 일부다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여러 부인을 둔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많은 혼인지참금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전통 사회에서 일부다처를 실천하는 곳은 농촌지역이었다. 농촌에서의 일부다처는 밭에서 일할 노동력을 얻을 목적이었다. 또한 일부다처는 지식인보다는 문맹인, 젊은이들보다는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현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일부다처제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많이 변했다. 즉, 사회경제, 교육, 종교, 특히 기독교의 유입으로 일부다처제는 쇠퇴하고 있다. 결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일부다처제가 성행한 이유는 “일부일처제보다 일부다처제가 더 많은 소득을 주었기 때문이었으며, 더 높은 사회신분을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1)</sup>

한편, 흑아프리카에서 일처다부제는 자연환경에 따른 사회적 요인과 모든 것의 근원이 모신(母神)이라는 신화적 요인에 기인한다. 곧, 토대의 기원, 정위의 수호신, 남성의 권력을 여성의 모습에 숨긴 여성 등 기원 및 공동체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재고할 수 있는 기준점에 기인한다.<sup>22)</sup> 이러한 의미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의 바실렐레Bashilélé족의 일처다부제는 우리의 눈길을 끈다. 이 종족 사회에서 일처다부제의 구성 방식은 다음과 같다. 10~30명의 동년배 청년 그룹이 한 지역, 즉 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쿰부 Kumbu’에서 같이 살기 위해 집을 떠났다. 청년들이 그곳에 정착한 후에 그들

21) Jacques Maquet, “Bamiléké”,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bamileke/>

22) Philippe Borgeaud, *La Mère des Dieux*, Paris: Seuil, 1996, p.55.

을 위해 선택된 한 여자가 ‘공동의 여인’이 되었다. 청년들은 함께 여자의 부모에게 혼인지참금을 제공했다. 혼인하기 전에 청년들은 여인을 사로잡기 위해 경쟁을 했다. 여인은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청년들을 한명씩 제거할 수 있었다. 선택된 청년들은 조식을 지키기 위해 여인이 정한 규칙에 따랐다. 이러한 여인은 특별한 지위를 가졌으며, 이 여인이 낳은 아이들은 콤부에 소속되었다. 기독교 전파와 식민지화로 이 전통은 미개한 것으로 여겨져 지금은 사라졌다.<sup>23)</sup>

예전의 흑아프리카의 여러 사회에는 남편의 남자형제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여러 형태의 일처다부제가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일처다부제가 동부아프리카 우간다의 바히마Bahima족 사회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결국, 흑아프리카의 혼인제도는 경제(여성과 아이들의 생산적 가치), 종교(이슬람, 토속종교), 사회(만이의 권위), 정치(만이의 권한과 권력) 등의 요소들이 반영된 제도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종족들이 가계(친족)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 요소들을 어떻게 운용했는지를 부계 및 모계 사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IV. 부계 사회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여타 사회와 마찬가지로 친족관계였다. “권리, 특권, 의무, 이 모든 것들은 친족관계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며, “개인은 예외 없이 실제의 혹은 가공의 친족관계를 맺고 있어야 했으며, 쌍무적 의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인은 잠재적인 적으로 취급”<sup>24)</sup>되었기 때문이다. 수장의 역할은 이러한 친족 관계에서 그 관계의 범위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했다. 우리는 지금부터 흑아프리카 부계사회의 특징, 즉 자손이 부계의 성(姓)을 따르며 조상의 재산이 부계로 이어지는 특징

23) Séraphin Ngondo A Pitshandenge, *La polyandrie chez les Bashilélé du Kasai occidental (Zaïre) fonctionnement et rôles*, commenté sur : <http://www.afrik.com/article7226.html>

24) E. E. Evans-Pritchard, *The Nu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0, p.183.

을 수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흑아프리카 부계사회의 특징은 사회 정치적으로는 수장 혹은 맏이의 권한, 경제적으로는 토지의 상속과 관리 및 운영, 종교적으로는 제의식의 주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장은 종족의 관습 혹은 규범에 따라 맏이나 최고 연장자 혹은 최고의 능력자 등이 맡았다. 이때, 수장은 종족사회의 번영과 안녕을 책임지면서 정치적, 경제적 전권을 행사했다. 수장의 전권 행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혈족 혹은 친족의 생활 근간이 되는 토지의 분배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맏이의 권한이 절대적인<sup>25)</sup> 반투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혈족 단위를 최소단위 혈족, 소단위 혈족, 중단위 혈족, 대단위 혈족 등으로 키워가면서 그 혈족을 부족단위로 발전시킨 반투족<sup>26)</sup> 사회에서 맏이(수장)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을 때, 친족관계는 때로 수장의 죽음과 궤를 같이 했다. 반투족의 하위 종족인 바밀레족<sup>27)</sup>(카메룬 고원지대 거주)의 사회에서 수장의 죽음은 친족관계 분할의 원인, 새로운 가계 형성의 원인이 되었다. 수장의 상속자로 지명되지 못한 이들은 수장 곁을 떠나 새로운 가계를 만들어 생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속자로 지목받지 못한 형제들에게 삶의 최고 목표는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마을을 만들어, 그 마을을 부흥시키는 것이었다.

흑아프리카 여러 종족 사회에서는 많은 경우 맏이가 가계를 이어받았지만, 동생들이 아버지의 의무를 이어받는 경우도 있었다. 바가족<sup>28)</sup>(기니 연안 거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들을 통해 아들에게 이양되었다.

25) Luc de Heusch, “Bantou”,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bantou/>

26) 반투(Bantou 콩고어로 ‘인간’을 의미함)족이란 중·남부 아프리카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방대한 언어군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서로 다른 4백여 가지 반투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 중에 부시맨과 호텐토트족만이 기원이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27) Jacques Maquet, “Bamiléké”,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bamileke/>

28) Jacques Maquet, “Baga”,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baga/>

어머니는 남편에게서 위임받은 맡을 아들에게 넘겼다. 토지를 물려받은 가문의 승계자는 스스로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모든 농사일을 상징적으로라도 시작해야 했다. 이러한 행위는 그가 가진 상당한 권한, 즉 수위권(首位權)을 보여주는 중요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전통 사회에서 수장은 토지의 운영 이외, 종족의 안녕을 비는 종교적 행사를 주관하는 책임을 졌다. 밤바라족의 마을에서는 거주기간의 장단으로 그 집단들 사이에서 서열이 매겨졌다. 가문을 세운 집안의 맏이는 연례 의식을 책임졌다. 그는 대지와 결속을 상징적으로 반복하면서, 때로는 마을에서 가까운 작은 성스러운 숲에 제물(다지리투dasiri tu)을 바치면서 번영을 약속하는 제의식을 주관했다.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제의식의 주관은 권위의 상징이었다. 그 의식에서 권위를 상징하는 징표로는 가면, 의복, 단장 등 다양했다. 일례로 이보족<sup>29)</sup>(나이지리아 동부 지방 거주)의 전통 사회에서는 조상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단장을 소지한 맏이가 제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맏이만이 가문의 시조 성소에서 제식을 집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가계 내부의 대립을 심판하고 외부 관계에서 가계를 대표했기 때문이다.

흑아프리카 전통사회에서 수장은 맏이가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때로는 부족사회에서 최고 능력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사회는 상속 수장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가계의 책임을 최고연장자에게 부담시키지도 않았다. 수장은 오로지 지혜, 재치, 종교적 능력 등에 따라 만장일치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장은 키쿠유족<sup>30)</sup>(케냐)의 사회에서 존경받았다. 선택된 수장은 가계의 종교행사를 주관했다. 가계를 구성하는 확대가족의 각 가족은 부계의 권한에 복종해야 했다.

키쿠유족이 능력을 우선하는 사회인데 비해, 팡족<sup>31)</sup>(가봉 거주)은 종족의 권위 혹은 종족들 간의 권위보다는 강렬한 경쟁관계를 선호했다. 한 마을에서

29) Jacques Maquet, "Ibo",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ibo>

30) Jacques Maquet, "Kikuyu",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kikuyu/>

31) Jacques Maquet, "Fang",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fang/>

동일한 외연을 갖는 가족이 있을 경우 확대가족의 가장이 실제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가장은 최고 연장자가 아니라 최고 능력자였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들은 능력이 감소할 때 권위를 잃었다. 능력이 감소한 노인이 홀대받는 팽죽 사회와 달리 카라모중족<sup>32)</sup>(우간다, 케냐 국경지역 거주)의 전통 사회에서는 노인 정치가 일반적이었다.

## V. 모계 사회

흑아프리카에서 부계사회는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이에 비해 모계사회는 제한된 지역에 분포했다.<sup>33)</sup> 중앙아프리카의 밀립 남쪽 사바나 지역, 즉 앙골라의 대서양 해안부터 탄자니아 해안까지, 그리고 모잠비크의 인도양까지 반투족의 ‘모계벨트’가 펼쳐졌다.

흑아프리카 모계부족의 특징은 부계사회보다 한정적이었던 정치적 지평과 혼인 후 부부의 거주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모계사회의 정치지평은 사회 독립단위인 마을이라는 영토 단위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모계사회는 혈족 우선 혼인제를 영위했다. 즉, 부계혈족과의 결합으로 사촌이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흔했다.

흑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거주하며 모계 혈족을 추종한 반투족(콩고남부

32) Roger Meunier, “Karamojong”,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karamojong/>

33) 부계사회는 역사적으로 사실로서 널리 인정되는 반면에 모계사회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제도로 인식되었다. 모르간, 바쇼펜, 엥겔스에 따르면 인간 사회는 원시사회, 미개사회, 문명사회의 순으로 발전했다고 한다. 이 발전 단계 중 모계사회는 두 번째 단계에 속한다.(L. H. Morgan, *Ancient Society*, 1877; J. J. Bachofen, *Le droit maternel*, 1861; F. Engels, *L'origine de la famille, de la propriété privée et de l'État*, 1884. “Colloque : Genre, familles et sociétés”, Université Cheikh Anta Diop de Dakar, 8-9 juillet 2015.) 서구학자들과 달리 체크 안타 디오프는 부계사회와 모계사회의 구분을 환경 및 기후 결정론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부계 및 모계사회는 환경 및 기후에 따른 사회와 경제와 종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Cheikh Anta Diop, *L'Unité culturelle de l'Afrique noire précoloniale*, Paris: Présence Africaine, 1982.)



지역, 중앙아프리카)과 그 하위 종족들인 콩고Kongos족, 야카Yakas족, 펜데 Pendes족, 렐레Leles족, 쿠바Kubas족은 부계혈통이라기보다는 모계혈통으로 여겨졌던 혼인제도, 즉 데릴사위 제도를 추종했다.<sup>34)</sup> 혼인 후 남성이 여성 가족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이 제도는 농업이 정착되기 전 전통적인 흑아프리카 여성들이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한 결과였다. 상황이란 남녀의 역할구분에서 생물학적 친근성보다는 사회적 친족관계에 역점을 두어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여 종족을 유지시키려던 사회적 합의를 말한다. 곧, 모계사회는 부모의 역할, 부부의 역할, 책임, 권리 등에 따라 성적으로 불균형을 심화시켜 온 부계사회의 권력 관계와는 다른 젠더의 법적 산물이었다. 모계사회에서 어머니의 아들 혹은 딸은 아버지 가계와 결부되기 전에 어머니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sup>35)</sup> 전통적인 족장지역이나 왕국에서 승계는 우선 딸의 아들에게 이루어졌고, 그 다음으로 부계의 후손들에게 이뤄졌다. 이러한 승계 제도에서 데릴사위제도는 모계 혈족의 관습이었다.

모계사회는 어머니를 매개로 하여 조상의 과업을 이어가는 부족 제도였다. 부족 제도는 가족 제도였을 뿐 아니라 족장, 왕권으로서의 정치 제도였다. 이 맥락에서 어느 특정한 지위는 어머니 후손들에게만 허용되었다. 사바나 지역 반투족의 입법자와 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입법자는 입법자였던 모계 직속 가계의 후손들만이 될 수 있었으며, 왕의 아들은 어머니가 역사적으로 왕의 가계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왕이 될 수 있었다. 왕은 입법자들의 가계에 속하는 자문위원회에서 선출되었다.

모계혈통을 따르는 반투족에게 왕은 신성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산과 풍요

34) A. R. Radcliffe-Brown et Daryll Forde, *Systèmes familiaux et matrimoniaux en Afrique*, Paris: PUF, Bibliothèque de sociologie contemporaine, 1953, traduction révisée par M. Griaule. Fatou Kiné Camara, *Bantous matriarcaux (groupe ethnique) : un grand courant civilisateur de l'Afrique noire*, matricien.org/geo-hist-matriarcat/afrique/bantou에서 재인용.

35) 생물학적 친근성보다 사회적 친족관계에 역점을 둔 예로는 흑아프리카의 모권제 가족제도에서 사용하는 호칭을 들 수 있다. 그 호칭은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그것과 다르다. 모권제 사회에서는 여자자매, 여자 사촌, 이모, 어머니를 부를 때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친족관련 명칭들은 아버지와 가까운 혹은 먼 관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졌다. 고모는 여성-아버지(bàjjen)로, 외삼촌은 남성-어머니(nijaay)로, 처제는 여성-남편(njèkké)으로 부른다.

뿐만 아니라 우주 리듬의 균형 유지에 책임을 졌다. 이러한 책임은 상징적 결합으로 만들어진 그의 권력으로 구현되었다. 상징적 결합이란 친족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외혼의 원칙을 벗어난 결합을 말한다. 쿠바Kuba 왕국의 즉위식에서, 왕은 어머니, 아버지의 부족들과 모든 관계를 끊었다. 그는 의례적으로 누이와 성관계를 가졌고 근친상간적으로 순수 모계 부족에 속하는 어린 여자조카와 혼인을 했다. 분요로Bunyoro 왕국의 왕은 왕비-어머니 및 왕비-누이와 함께 통치했다. 왕비-누이가 첫째 부인이었으며 왕비-어머니 부족은 왕에게 두 명의 어머니-부인들을 바쳤다. 이 어머니-부인들이 마법을 사용하여 왕을 보호했다.

모계 반투족의 사회에는 마을의 기본 단위이며 중심인 소로리(sororie, 자매 집단)가 있었다. 10여 채로 이뤄진 그곳에서는 공동 조상이며 족보상으로 가까운 모계 출신 여성 3~4세대의 인원 30~50명이 모여 살았다.

전통 모계 사회에서 혈족은 각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결정된 지위에 따른 유산 분배에 관여했으며, 혈족에 속한 각 개인이 빚을 안고 있다면 그의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주었고, 개인이 어떠한 예측 상태에 있다면 그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었다. 혈족의 재산은 종종 노예를 사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모계사회의 대표적인 예로 쿠바족의 전통 사회를 들 수 있다.

쿠바족<sup>36)</sup>(콩고민주공화국 거주)의 경우, 핵가족은 수장과 왕을 제외하고는 일부일처제가 의무였다. 왕은 다양한 혈족들이 바친 약 600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다. 핵가족은 기초적인 경제 기본단위로 부부와 자녀들과 다른 부부 관계에서 낳은 자식들로 구성되었다. 이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연애결혼이 주로 이뤄졌고 여자의 동의를 얻으면서 연인관계로 시작했다. 쿠바족의 사회에서 혼인지참금은 합법이였다. 혼인지참금은 증인 앞에서 건네졌다. 남자 측 아버지가 여자 측 부모에게 혼인지참금을 지급한 경우는 변칙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혈족이 아닌 경우에 해당했다. 다른 형태의 남녀 결합인 동거는 더 많은 혼인지참금을 필요로 했다. 혈족의 부인이 다른 혈족에게 지참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동거 부부의 자식들은 남자 측의 혈

36) Jacques Maquet, "Kuba",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kuba/>

족에 편입되었다. 금전이 필요할 경우 아버지는 딸을 팔기도 했다. 이 경우는 쿠바족의 모계혈통 체제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였으므로 아버지는 외삼촌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었다. 시대가 변하고 정치 및 경제적 환경이 변하면서 흑아프리카 전통 사회에서 부계혈통은 모계 혈통을 약화시켰다.

## VI. 결론

우리는 흑아프리카 전통 가족제도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요소들, 즉 남녀의 역할 구분, 토지, 지참금, 가족 등이 종족 유지를 위해 왜 필요하며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흑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 남녀의 역할 구분은 노동력의 효율적 배분에 따른 결과였으며, 맏이 혹은 수장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던 토지는 종족의 안위와 평화 그리고 구성원의 결집을 위해 절대적이었다. 혼인 지참금은 농경문화에서 중요한 노동력의 상실 및 보충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제도였으며, 지참금이나 사회적 위상 과시를 위해 쓰였던 가족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유를 위해 중요하게 여겨졌던 대상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흑아프리카의 가족을 지탱했던 특징적 요소들은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흑아프리카의 전통 가족 제도에서 볼 수 있었던 혼례 제도, 즉 일부 다처제와 일부일처제는 한편으로는 노동력 확보의 차원에서 추종했던 제도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족 내에서 개인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위상을 드러내는 제도였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영위된 제도였다. 흑아프리카 전통 사회의 혼례 제도 및 가계 구성은 주어진 경제적, 사회적, 자연적, 정치적 환경에 순응하는 생활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구성은 그 제도가 함유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좁게는 가족관계에, 넓게는 친족관계에, 그리고 더 넓게는 타종족과의 관계에 적용하여 그 관계들을 유지하고 확장하면서 종족 번식과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흑아프리카의 전통 가족 제도는 한편으로는 각 종족들이 처한 다양한 환경,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제반 상황에 순응하여 발전시킨

방식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질서라는 측면에서 사회 관습과 규범을 만들고 발전시켜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관점에서 생산, 소비, 자본 축적을 위한 방편이었다.

그러나 흑아프리카 사회의 전통 가족 제도도 현대화, 세계화라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고 현재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변화 속에서도 흑아프리카 전통 사회 가족 제도의 특징들은, 우리가 아직도 다양한 부족들의 종족 번영과 유지를 위한 “연대 의식과 공동체 정신”<sup>37)</sup>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준임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그 특징들은 미지의 세계에나 존재하는 유별난 생활방식이 아닌 지역과 인종을 떠나 인류가 보편적으로 영위하며 추종했던 생존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 ❖ 참 고 문 헌

- 로타 조제 카푸타, 『아프리카인이 들려주는 아프리카 이야기』, 이경래 외 옮김, 새물결, 2012.
- Anani, Isabelle Akouhaba, *La dot dans le code des personnes et de la famille des pays d'Afrique occidentale francophone cas du Bénin, du Burkina-Faso, de la Côte d'Ivoire et du Togo*, Copenhagen: The Research Department,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08.
- Borgeaud, Philippe, *La Mère des Dieux*, Paris: Seuil, 1996.
- Colloque : Genre, familles et sociétés*, Université Cheikh Anta Diop de Dakar, 8-9 juillet 2015.
- Diop, Cheikh Anta, *Nations nègres et culture*, Paris: Présence Africaine, 1979.
- \_\_\_\_\_, *L'Unité culturelle de l'Afrique noire précoloniale: domaine du patriarcat*

37) 조제 카푸타 로타, 『아프리카인이 들려주는 아프리카 이야기』, 이경래 외 옮김, 새물결, 2012, 75쪽.

- et du matriarcat*, Paris: Présence Africaine, 1982.
- Delafosse, Maurice, *Les Noirs de l'Afrique*, Paris: Payot, 1922.
- Evans-Pritchard, E. E., *The Nu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40.
- Kagame, Alexis, *Les organisations socio-familiales dans l'ancien Rwanda*, Bruxelles: Institut royal colonial belge, 1954.
- Lam, Aboubacry Moussa, “La Polygamie : réalité, causes, manifestations et conséquences en Afrique noire depuis l’Egypte ancienne”, *ANKH* n° 16, 2007.
- Mathieu, Paul, *Les paysans, la terre, l'Etat, et les marchés fonciers "émergents" : quelles pratiques de sécurisation et de formalisation endogène des transactions ?* Bruxelles: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Institut d'Etudes du Développement, 1999.
- Musabyimana, Gaspard, *Sexualité, rites et mœurs sexuels de l'ancien Rwanda*, Bruxelles, à compte d'auteur, 1999.
- Paulme, Denise, “Structures sociales traditionnelles en Afrique Noire”, *Cahiers d'études africaines*, vol. 1, n°1, 1960.
- Testart, Alain, “Propriété et non-propriété de la Terre. L'illusion de la propriété collective archaïque (1re partie)”, *Etudes rurales*, n°165-166, 2003.
- Zuccarelli, François, “De la chefferie traditionnelle au canton : évolution du canton colonial au Sénégal – 1855~1960”, *Cahiers d'études africaines*, vol. 13, n°50, 1973.

- 인터넷 자료

- Balandier, G, “Kongo Royaume du”,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royaume-du-kongo/>(검색일: 2016.1.12.)
- Bazin, Jean, “Bambara”,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bambara/>(검색일: 2016.1.12.)
- Bigo, Stéphane, *L'Homme de l'Afrique noire*, 2005. [www.stephanebigo.com/pdf\\_files/](http://www.stephanebigo.com/pdf_files/)(검색일: 2016.8.5.)
- Camara, Fatou Kiné, *Bantous matriarcaux (groupe ethnique) : un grand courant civilisateur de l'Afrique noire*, [matricien.org/geo-hist-matriarcat/afrique/bantou/](http://matricien.org/geo-hist-matriarcat/afrique/bantou/)(검색일: 2016.9.18.)

- <http://imahaka.wordpress.com/2009/11/02/la-polygamie/>(검색일: 2016.8.5.)
- [http://fr.altermedia.info/general/senegal-la-polygamie\\_9655.html](http://fr.altermedia.info/general/senegal-la-polygamie_9655.html)(검색일: 2016.8.5.)
- Heusch, Luc de, “Bantou”,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bantou/>(검색일: 2016.1.12.)
- Jouval, Frédérique, *Histoires de Polygamie Africaine*, [http://www.picturetank.com/Histoires\\_de\\_Polygamie\\_Africaine.html](http://www.picturetank.com/Histoires_de_Polygamie_Africaine.html)(검색일: 2016.8.17.)
- Maquet, Jacques, “Baga”,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baga/>(검색일: 2016.1.12.)
- \_\_\_\_\_, “Bamiléké”,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bamileke/>(검색일: 2016.1.12.)
- \_\_\_\_\_, “Fang”,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fang/>(검색일: 2016.1.12.)
- \_\_\_\_\_, “Ibo”,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ibo/>(검색일: 2016.1.12.)
- \_\_\_\_\_, “Kikuyu”,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kikuyu/>(검색일: 2016.1.12.)
- \_\_\_\_\_, “Kuba”,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kuba/>(검색일: 2016.1.12.)
- Meunier, Roger, “Bobo”,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bobo/>(검색일: 2016.1.12.)
- \_\_\_\_\_, “Bakota”,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bakota-kota/>(검색일: 2016.1.12.)
- \_\_\_\_\_, “Chagga”,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chagga/>(검색일: 2016.1.12.)
- \_\_\_\_\_, “Fon”,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fon/>(검색일: 2016.1.12.)
- \_\_\_\_\_, “Karamojong”,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karamojong/>(검색일: 2016.1.12.)
- Morel, Alain, “Bété”,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bete/>(검색일: 2016.1.12.)
- \_\_\_\_\_, “Kotoko”,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kotoko/>(검색일: 2016.1.12.)
- \_\_\_\_\_, “Lobi”,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

encyclopedie/lobi/(검색일: 2016.1.12.)

Pitshandenge, A., *La polyandrie chez les Bashilélé du Kasai occidental (Zaïre) fonctionnement et rôles*, commenté sur : <http://www.afrik.com/article7226.html>  
(검색일: 2016.8.6.)

Universalis, “Herero”, *Encyclopædia Universalis* [en ligne]. <http://www.universalis.fr/encyclopedie/herero/>(검색일: 2016.1.12.)

❖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in Black Africa

Yu, Jai-Myong

This research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systems of traditional societies in Black Afric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chosen three subtopic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raditional societies, marriage customs (polygamy and polyandry), and the societal features of patriarchal and matriarchal societies.

First, we analyze men's and women's roles,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land, dowry, and social values of livestock as the distinctive features that support the family system in traditional Black African societies. These elements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Next we analyze marriage customs—polygamy and polyandry—which increase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on the one hand, and secure the labor force, on the other hand. Most traditional societies in Black Africa practice polygamy. However, the Bashilélé and Bahima practice polyandry. Polygamy in traditional societies in Black Africa is based on the traditional social customs that display the authority and dignity of the family head, who has control over all family members in both patrilineal and matrilineal societies. The authority and dignity of the family head are used to keep and increase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that is, to secure the community firmly.

Finally, most traditional societies are patrilineal. However, matrilineal societies are prevalent in the so-called Matrilineal Belt, which term refers to the savanna regions where Bantu peoples reside, that is, the coastal regions from the Angolan coast, bordering the Atlantic, to the Tanzanian and Mozambique coasts that border the Indian Ocean. These societies trace descent through the maternal bloodline.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in Black Africa is based o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as well as on the community spirit of the members, which has resulted from the choices made to increase the prosperity and well-being of the people.



---

Key Words

traditional family system in Black Africa, polygamy, polyandry, Matrilineal Belt, société patrilineal society, matrilineal society

논문접수일: 2016년 11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01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05일